

왜곡된 자각 경험을 실재의 지평으로



박래원 교수의
貪·瞋·癡 철학적 읽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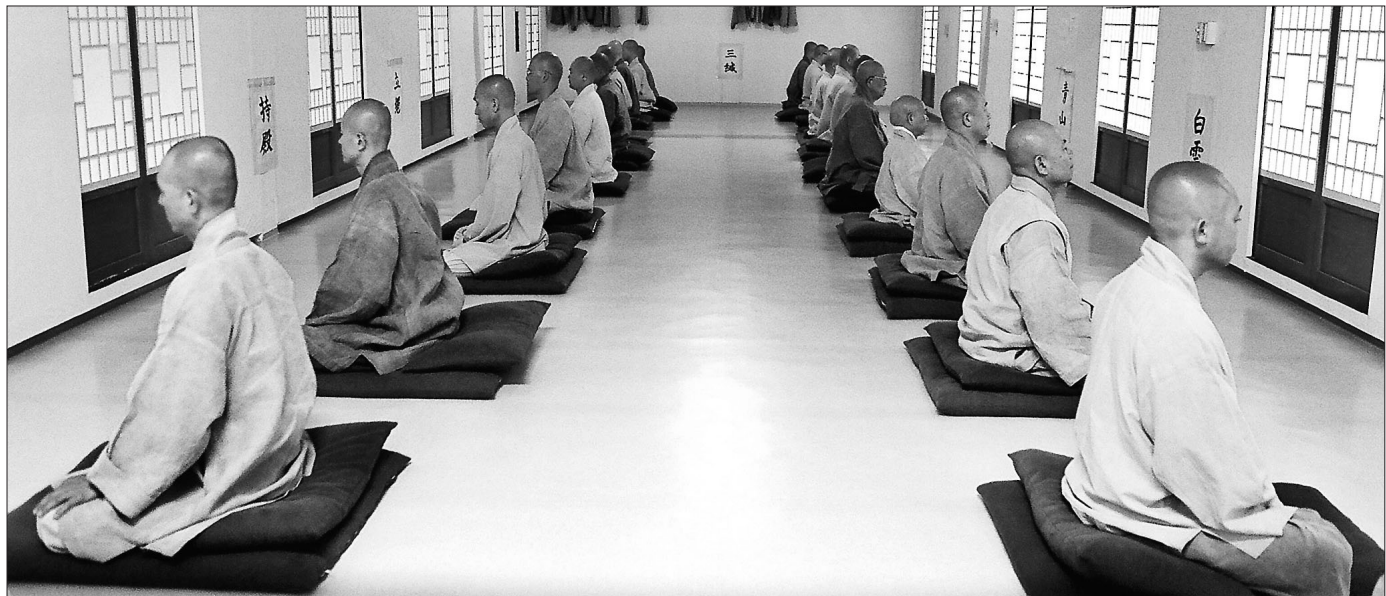
‘회론에 오염된 자각과 관념’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의 의미를, ‘자각경험은 언제나 모두 왜곡·오염되어 있을 뿐’이라는 의미로 읽는다면, 해탈·열반의 경험은 자각경험 범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다. 상수멸(想受滅)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지각(想)과 느낌(受)의 중지(滅)’로 보아 ‘모든 지각이 멈추고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상태’ ‘모든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감각을 통한 모든 지각은 의근(意根)의 결합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 의근의 기능은 생명이 유지되는 한 멈출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해탈·열반의 경험은 살아있는 육근에서 성취된다는 것(현법열반)을 모두 감안하면, 아무리 잠정적 형태라 할지라도 자각 자체의 중지를 상수멸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설혹 가사상태라 할지라도 지각은 중

진여 지평을 잃어 들이는 방식에 따라 ‘온전한 자각경험’과 ‘왜곡된 자각경험’으로 나뉜다. 중생의 지각은, 언제나 대면하고 있는 ‘실재(實在)·실체가 아니다’ 그대로의 지평, 그 진여지평을, 순간순간 놓치고 있을 뿐이다. 몸이 언제나 대면하는 실재 지평, 그러나 그 지평을 순간순간 놓치고 마는 왜곡된 자각경험, 새로운 자각능력의 계발을 통해 실제 지평을 지각에서 만나는 온전한 자각경험의 성취, - 이 세 가지가 불교철학과 수행의 근본구조이자 과제이다.

구하는 초점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거부한 이유’에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추정이 무기설 탐구의 연구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추정으로,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무관심, 현실의 괴로움 문제에 집중하는 실천적 태도,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불가지론적 태도, 실재가 개념적 명제를 초월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경험·분석철학적 태도, 사성제 같은 법설이 참된 철학적 문제임을 알리려는 것’ 등이 있다.

무기 설법을 대표하는 <말록까야뵈파에 대한 작은 경>(중야함 <전유경>)에서 붓다는 10가지 유·무 판단과 관련한 말록까야뵈파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이유를 똑똑한 비유와 더불어 밝히는데, 이 견해들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

한다는 것이다. 답변 거부 대상이 되고 있는 질문들은 모두 검증 불가능한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그리고 답변을 거부한 붓다의 태도는, 그가 제시한 거부 이유들을 감안한다면, ‘형이상학적 질문을 거부하는 철학적 근거와 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철학적 태도를 ‘형이상학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가지론’ ‘실재의 개념초월’ 등에서 찾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붓다로 하여금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철학적 근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실존 자유의 문제’ ‘검증 가능성의 문제’ ‘유익한/진정한 철학적 문제’ 등과 모두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철학적 이유들은 결국 두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수행 중인 수좌 스님들. 왜곡된 자각 경험을 수행을 통해 실제 지평을 지각에서 만나는, 온전한 자각 경험의 성취는 수행의 핵심이라고 박래원 교수는 말하고 있다.

해탈은 오온·육근의 몸에서 성취 온전한 자각 경험을 통해 이뤄내
형이상학, 붓다는 판단을 거부해

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한다. 안·이·비·설·신의 감각기능이 외부 세계의 정보유입과 차단되는 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의근은 기억 등을 대상으로 내적 자각활동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느낌과 지각은 발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탐·진·치에의 속박과 그로부터 풀려남은, 이 철학과 수행구조의 핵심이다.

흔히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대한 거부로 이해되는 ‘무기(無記, 설명되지 않은 것·대답되지 않은 것)’의 문제로 이러한 붓다 경험주의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간단하게는 여래4구(如來四句, 사후의 여래에 대한 존재스비존재스존재·비존재스비존재·비비존재의 판단)나 신체와 정신의 동이(同異)판단에서부터, 10무기를 전제로 한다면, 해탈·열반의 ‘온전한 경험’과 분별·회론 망상의 ‘왜곡된 경험’은 모두 자각경험 범주 내의 일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여실하게 지각하는 지평’과 ‘왜곡시켜 지각하는 지평’의 두 가지 지평 모두가, 자각경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두 지평은 사실상 동일 상태에 대한 두 가지 관계방식이다. 인간의 몸은 언제나 존재의 ‘있는 그대로’(眞如) 지평을 대면하고 있다. 이 ‘있는 그대로’의

가 없으며, (탐·진·치를) 멀리 여의어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붓다 자신이 설명한 것은 ‘△괴로움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며, 이 사성제 연기법은 ‘유익하고 청정한 삶과 관계가 있으며, (탐·진·치를) 멀리 여의어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불의 비유와 밧자긱따의 경>에서는, 이러한 사변적 견해들은 ‘견해의 왜곡이고 견해의 동요이고 견해의 결박’으로서 ‘고통과 번뇌와 고뇌를 수반하며’(탐·진·치를) ‘싫어하여 떠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달아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붓다는 이러한 사변적 견해를 가까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붓다는 오직 오온의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여 모든 환상과 혼란, ‘나’와 ‘나의 것’을 만드는 모든 것, 자만의 잠재의식을 소멸시켜 해탈

까지 원리로 수렴된다. 하나는 ‘두 층으로 구성된 붓다의 경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실존 실용주의’이다. 그리고 이 두 원리가 수렴되고 발산되는 원점은 ‘탐욕·분노·무지의 문제’이다.

붓다의 경험주의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온전한 경험·실재의 경험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붓다 경험주의로 볼 때, 무기설법에 등장하는 질문들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여래4구이든 10·14·16무기이든 간에, 모든 질문들은 결국 유(有)·무(無) 판단을 조건으로 성립된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무 판단은 존재와 세계의 연기적 지평을 일탈하는 실제론적 개념조건으로서 인식적 오류의 기초이다. 인간은 이 유·무 판단을 두 범주에 적용한다. 경험 가능한 세계의 지시와 분류 및 분석에 적용하기도 하고, 형이상학적 범주에 적용하기도 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불교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신(神)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종교도 아니다. 불교의 교조(敎祖)인 석가모니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의 길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교조인 석가모니를 크나큰 스승으로, 그의 가르침을 진리의 등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그런 의미에서 도사(導師)라고도 불려진다. 길에서 길을 가리키는 길의 안내자이자 대스승이란 뜻의 게다. 부처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석가의 생전 모습이 그러대로 사실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초기의 경전에는 그 어디에도 형이상학적인 구름 잡는 이야기가 깃들여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형이하학(形而下)적인,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 잔잔하게 그려져 있을 따름이다. 석가는 또한 오늘의 지혜를 일깨우는 큰 스승답게 합리적인 가르침만을 들려

물속에 잠긴 돌이 물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겠는가?”

석가는 이어서 다시 총장에게 묻고 있다. “남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따위의 갖가지 나쁜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 그의 친척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며 지극 정성으로 기도했다고 하자, 그 기도의 힘으로 이미 죄진 사람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불교에는 신의 은총도 없지만 신의 저주도 없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고 신을 믿고 섬기라고도 하지 않는다. <상응부경전>에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소개하겠다. 석가가 죽림정사(竹林精舍)에 머물고 있을 때 바카리라는 이름의 늙은 비구(比丘)가 어느 옹기장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감지하고 사람을 죽임정사로 보내 자신은 늙고 병이 깊어 움직일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옹기장이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신을

불교는 神 중심... 구원의 종교 아나 부처님, 삶의 현장 속 지혜 설하셨다

주고 있는 것이다. <상응부경전(相應部經)>과 <잡아함경(雜阿含經)>에 보면 석가는 다섯 가지의 원칙 아래서 제자들을 상대로 설법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 둘째 때를 거르지 않고 과보(果報)가 있는 것, 셋째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넷째 열반(涅槃)에 잘 인도(引導)할 수 있는 것, 다섯째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석가는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평범한 진리만을 설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상응부경전>에 있는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위해 설법을 들려주실 수 없겠느냐고 여쭙게 했다. 부처님은 기꺼이 옹기장이 집으로 찾아왔다. 바카리가 감격해 하며 불편한 몸을 일으키려 하자 부처님은 그를 다시 편안한 자세로 눕게 했다. 바카리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이 시어! 저는 회색할 겨를이 없나이다. 병이 깊이 뿌리를 내려 제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겠나이다. 마지막 소원이오니 부처님의 발등에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인도에서는 지금도 귀한 손님이 집에 올 경우 발등에 입맞춤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그때 부처님은 잔잔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만 두거라, 바카리여. 이 몸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쓰러질 것이다. 바카리여! 법(法:진리)을 보는 이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볼 것이니라.”

석가는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신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와도 다르다. 오직 길을 가르쳐 주는 이며 지혜와 실천의 선각자요, 대스승일 따름이다. 불교는 그런 의미에서도 형이상학 쪽이 아니다. 내일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현생(現生)의 정도(淨土)의 실현을 가르쳐 주는 종교이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향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 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뎀) 8cm]

